

좋은 책 가려주는 믿음직한 길라잡이

주강현 | (사)민속문화연구소장 · 문화재전문위원

《출판저널》이 지령 300호라니! 하긴, 연구실의 한귀퉁이를 가지런히 차치하고 있는 《출판저널》의 총량이 상당분량인 것으로 미뤄 오래됐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막상 300호라니 놀랍다. 척박한 풍토에서 출판정보지가 300호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책에 관한 한 어떤 정보보다도 《출판저널》을 신뢰한다. 기간된 《출판저널》을 버리지 않고 서가에 일렬횡대로 꽂아두고 있다. 모든 책을 살 수 없을 바에는 모든 책의 정보라도 알고 지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출판저널》은 책에 관한 한 가히 '정보의 숲'이 아닐까. 나의 책 구입방식은 매우 고답적이다. 게으른 탓으로 그때그때 책을 구입하지 못한다. 신문 스크랩을 잘만 해둬도 충분히 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스크랩도 게으른 사람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격주간으로 오는 《출판저널》을 철저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몇 주 동안 모아둔 《출판저널》을 훑어나가면서 사인펜으로 표시해 구입할 책을 적어둔다. 믿을 만한 이가 정당하게 매긴 서평이라면 더욱 신뢰가 간다.

물론 《출판저널》의 신간정보라고 해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 때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무조건적인 현사로 일관하는 서평도 있기 때문이다. 편향적이거나 보수적 기준으로 책을 자리매김하는 기사도 더러 눈에 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의 시각차가 나는 것 같다. 그러나 전문기자들이 쓴 기획기사나 새로운 필자의 신선한 얼굴 등은 《출판저널》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대목들이 아닐까. 오래 전에 나온 《출판저널》을 필요에 따라 들춰보면, 그 해 출판동향은 물론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단계도 알려주는 것 같아 요긴한 자료로 쓰인다. 사실 이 같은 출판정보지는 정보자료화해 지난 책들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산화해야 하지 않을까. 차체에 '양서구입의 지름길'을 들려주고 싶다. 잘못 선택한 책을 구입해 비싼 돈을 쓰기보다는 《출판저널》 같은 믿을 만한 전문지에 적은 구독료나마 투자해 많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안전하게 좋은 책을 선택해 돈과 시간을 절약하라! ●

가난한 도서관 채우는 책의 향연

박 희 | 숙명여고 사서교사



《출판저널》 지령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모티머 J. 애들러는 《독서의 기술》(범우사)에서 "책을 훌륭하게 읽기 위해서는 아무 책이나 무차별로 읽어서는 안된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만 읽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능력 이상의 어려운 책과 맞붙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책이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고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말은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빠르게 독서계획을 세워야 함을 뜻한다.

아마 한 사람이 읽는 책들과 그의 인생관은 거의 정비례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웬지 학교도서관은 쉬운 책들만 모아 두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이므로 책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대학도서관에 버금갈 정도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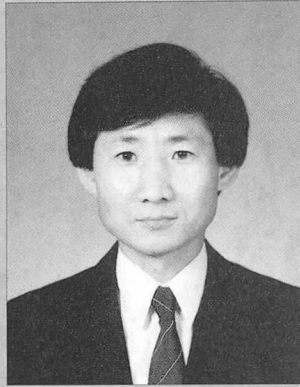
또한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야말로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공서적과 교양서적 동향을 알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에 맞게 열심히 도서관에 책을 모으려고 애써 왔다. 또한 청소년들의 독서능력이 차이가 심해 적은 예산으로 어떤 책들을 사야 하는지도 사서교사의 고민이다. 고전까지도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만화정도 밖에는 소화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도서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잡지가 바로 《출판저널》이다. 또한 가난한 도서관을 꾸려가면서도 기죽지 않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도 《출판저널》 덕택이다.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은 언제부터인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대학도서관마저도 거의가 수준미달이다. 학교도서관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정보빈민국'이다. 컴퓨터만 많다고 정보대국인가? 앞으로 《출판저널》 같은 정보지가 역할을 다해 우리나라를 정보대국으로 이끌어 줄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 ●

영양가 높은 먹을거리 고를 수 있는 '차림표'

윤석두 | 대관령 약국 약사

내가 사는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다. 동네가 작다 보니 책방이 따로 없고 문방구점 한면에 책장을 놓고 한정된 종류의 책들을 팔고 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학습지, 참고서 등이 주로 있고, 잡지와 신간도서 등도 취급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책은 쉬는 날, 강릉에 내려갈 때 책방에 들러 구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구해보곤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놓고 이 책 저 책 뒤져가며 구경도 하면서 책을 고르진 못한다.



그러던 가운데 《출판저널》을 만나 보름에 한번씩, 책방 가는 시간을 집에 앉아서 대신하게 됐는데, 책방에서보다 더 알뜰하게 내 입맛에 맞는 영양가 있는 메뉴를 고를 수가 있다. 먼지 쌓인 현책더미에 쭈그리고 앉아 절판된 지 오랜 책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뒤져가며 찾아내는 재미까지야 바랄 수는 없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지은이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해박한 비평자의 서평과 책을 고르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소개를 통해 좀더 넓은 안목이 생겨 좋다.

또한 보고 난 《출판저널》은 구멍 뚫고 칠근에 매 우리 약국 의자 옆에 걸여,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쓸쓸한 불거리 구실을 한다. 요즘엔 신문이나 잡지마다 신간서적 등 책 소개에 꽤 많은 지면을 쓰고 있는데, 일일이 그것을 오려서 스크랩할 수도 없고 해, 한권으로 걸어놓기엔 안성맞춤이다. 약 받아들고 얼른 집에 가자고 보체는 아이의 성화에 못다 본 대목을 아쉬워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집에 가지고 가서 다 읽고 다음에 돌려달라고 '대출'도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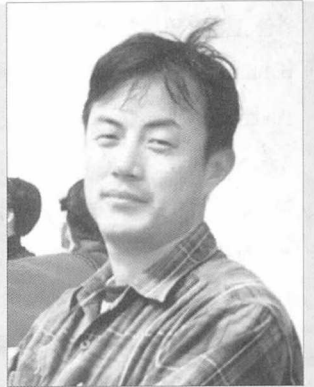
갖가지 책을 구하는 일이 쉬워진 세상에, 좋은 책을 고르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매체로서 《출판저널》이야말로 내게는 보물단지다.●

세상을 읽는 헤안 담긴 '역사 교과서'

오창준 | 《월간미술》 기획출판부장

내가 출판에 입문한 건 《출판저널》이 창간된 무렵이다. 그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출판정보지가 드물었고, 항상 정보에 목마르던 나에게 《출판저널》은 정보창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출판의 흐름을 짚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시의적절하게 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기사들도 다양해서 매호 탐독한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유명인사들의 서가를 들여다보는 맛이 각별했는데, 이 〈서가풍경〉 코너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실리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직업병이겠지만, 다른 이들의 집이나 사무실을 찾을 때, 심지어는 전철을 탈 때도, 무슨 책을 가지고 있나, 어떤 책을 읽고 있나를 짐작할 정도로 살핀다.



최근에 강애란의 〈디지털 북 프로젝트〉라는 전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치 〈서가풍경〉의 한 장면 같았다. 작가가 어려서부터 읽어온 책들이 거의 모두 나와 있었고, 그 가운데는 80년대의 대박(베스트셀러)들과 당시 판매금지된 책들도 눈에 띄어 기억이 새로웠다. 작가는 책을 소재로 작품세계를 구현하고 있는데, 관람자는 소재에 빠져 작품 감상은 뒷전이러니! 이게 다 〈서가풍경〉 덕분(?)이고, 흠쳐 보기의 매력이다.

나는 《출판저널》을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한다. 우선은 정보 습득. 개인적인 독서는 물론이고, 필자를 선정하거나, 기획을 할 때 유용하다. 매호 특집으로 제공되는 기사들도 즐기는 편인데, 1999년 창간 12주년 특집이었던 〈책의 아름다움〉처럼 책 주변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다음은 교육적인 측면이다. 출판은 세상을 읽는 능력이고, 그 능력의 역사가 담긴 《출판저널》은 역사 교과서와 같기 때문이다. 《출판저널》은 출판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담고 있는 유일한 매체다. 심지어 디자이너들도 표지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표지 디자인의 경향을 알고 싶으면, 《출판저널》을 훑어보면 된다. 컬러가 아니라 색감을 볼 수는 없지만 매호 많은 양의 단행본 표지 사진이 실리기 때문이다. 출판에 갓 입문한 후배들에게 《출판저널》을 권하는 이유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제의 출판광고를 수록하면 큰 도움이 될 게다. 대량 광고로 '대박'을 꿈꾸는 책들이 많지만, 광고 자체는 '쪽박'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